

도두콩 꼬투리,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

농진청,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면역글로불린 E 감소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고려대 학교와 함께 농가 특산 소득작목으로 재배되는 도두콩 꼬투리의 항알레르기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농진청은 알레르기를 유발한 쥐에 도두콩 꼬투리 추출물(200mg/kg)을 4주 동안 먹인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과 면역글로불린 E가 각각 17%, 53%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도두콩 꼬투리는 체내 알레르기 유발할 때 염증 억제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Th1, Th2)를 활성화하고,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Th2, Th17)의 활성을 억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utrients(IF=5.9)에 게재됐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도두콩 꼬투리의 식품 소재화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두콩은 외래에서 도입돼 국내 토착화된 작물로 작두콩이라고도 불린다. 생김 모양이 작두날같이 넓고 꼬투리가 큰 것이 특징이며, 예부터 비염, 염증성 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민간에서 콩과 콩이 어물기

전의 꼬투리를 먹어 왔다.

도두콩 꼬투리는 맛이 구수해 잘 말린 후 튀어 차로 만들어 판매됐으나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식용 불가 원료로 분류돼 제조와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다.

이에 농진청은 식용 근거와 안전성 관련 과학적 자료를 확보해 2017년 12월 도두콩이 어물기 전의 어린 꼬투리를 식품 원료로 고시 등재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4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2023년 남원농협 조합원 한마음대회'가 열린 가운데,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원농협, 조합원 한마음대회 개최

내빈·남원농협 조합원 5천여명 참석·성황리 마무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4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2023년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의회 전경기 의장, 시의원, 농협중앙회 김영일 전북지역본부장 및 남원시지부 오영석 지부장, 농협생명 이숙 전북지역총국장 등 내빈 및 남원농협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0주년 기념영상 시청, 비전 선포식 및 감사패 전달식을 했으며, 2부 행사에는 인기가수 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박기열 조합장은 "농업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며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남원농협은 함께 일군 50년, 함께 누릴 100년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이오진흥원-도내 농식품 기업, "글로벌 ESG 경영 가치 실천·확산"

'Global 6K(이하 G6K)' 나눔 걷기대회 참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기부 캠페인 진행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던 도내 농·식품 기업 (디자인 농부, 지리산 처럼, 팜조아)은 월드비전 전북사업 본부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Global 6K(이하 G6K)' 나눔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ESG 경영 가치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전북바이오진흥원과 농·식품기업 디자인 농부 등은 'Global 6K' 나눔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ESG 경영 가치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과 식수위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한편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진흥원 ESG 경영 전략 중 '꿈꾸는 진흥원' 추진 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꿈 날개 펼치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진흥원-도내 기업-사회공헌단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추가로 바이오진흥원과 도내 농식품 기업은 '꿈 날개 펼치기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말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코백 및 재생 볼펜 등을 후원했으며 물렛 던지기, 고리던지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행사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진흥원 및 도내 농·식품 기업 직원들은 6km 걷기대회에도 참가하였고 이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물을 매일 평균 6km를 걸어서 얻는다"

이날 행사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및 건지산 둘레길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km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신해 걷거나 달려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캠페인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바이오진흥원과 도내 농식품 기업은 초콜릿무 과자, 예

"친환경 운동 확산에 앞장설 것"

김영환 한전 전북본부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김영환 본부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운동에 앞장서겠다고 6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릴레이 운동이며, 김영환 본부장은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영환 본부장은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과 bye bye 하는 날까지 전북본부 전 직원들과 함께 친환경 운동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본부는 한전 지역본부 최초로 ESG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의 시 개인 머그잔·텀블러를 사용하고 현수막 대신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생활 속 실천도 이어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김영환 본부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는 친환경 실천운동에 앞장서겠다고 6일 밝혔다.

김영환 본부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다음 주자로 이정은 수협은행 전북지역금융본부장을 추천했다.

전주상의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

노사화합 선언문·등산대회 등 다채롭게 전개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전주시 고덕산 일원에서 제24회 노사화합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화합 다짐대회에 참석

한 300여명의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노사 한마음 다짐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이후 치러진 등산대회에서는 각 기업에서 남녀 임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주)정석케미칼 신익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에는 (주)전주제이퍼, (유)국민종합주택관리팀이, 준우수상에는 (주)창해에탄올, 신한방직(주), (주)미래에셋증권 신익팀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참가선수들이 선정한 인기상을 비롯한 노사화합상, 자연보호상, 페어플레이상, 협동상 등 총 12개팀이 상상의 기쁨을 안았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